

since 1986

SUNBO FAMILY

VISION 2015 |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

2014년 4월 15일

vol.123

World Best
SUNBO FAMILY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DSME, 우리 회사에서 천연가스 재액화장치 PRS 시연회 가져 대우조선해양과 우리 회사의 파트너십 강화 기대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27일 대우조선해양(DSME)이 자체 개발한 천연가스 재액화 장치인 'PRS(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다대2공장에서 열린 이날 시연회는 고영렬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사업총괄장), 엄항섭 전무(전략기획실장)를 비롯한 대우조선해양과 우리 회사 임직원 및 국내외 선주·선급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진행됐다.

PRS는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천연가스 재액화 장치다. LNG운반선은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수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 가스가 자연 기화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양이 발생한다. 때문에 자연 기화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PRS는 재액화에 필요한 냉매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화물창에서 발생한 증발가스(natural boil off gas)를 냉매로 활용한다. 추가동력과 냉매압축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주들은 초기 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건조 중인 캐나다 티케이(Teekay)사의 세계 최초 MEGI(전자제어식

가스분사) 엔진 적용 LNG운반선에도 PRS가 적용된다. 천연가스 재액화 장치를 채택한 LNG운반선은 종래 대비 선박 건조 비용과 운항 경비를 모두 절감할 수 있어 각국 선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가스텍(Gastech 2014) 행사 기간을 맞아 천연가스 재액화 장치 PRS를 선보이기 위해 우리 회사에 연구개발용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였다. 우리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의 PRS 기술을 구현해내기 위해 엔지니어링에서부터 모델링, 도면, 제작의 전 분야에 참여하여 가스가 성공적으로 재액화되는 것을 증명했다. PRS 제작에서부터 시연회 준비까지 불과 한 달이라는 촉박한 시간에 쫓겼으나 설계, 영업, 생산, 구매 등 전 부서가 힘을 합친 노력의 결과로 성공적으로 시연회를 마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선보인들의 저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행사로 국내외 선주들에게 우리 회사를 각인시킴과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PRS 기본 작동원리와 개념을 베이스로 하여 실제 시스템을 구현해냄으로써 향후 우리 회사와 대우조선해양과의 협업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DSME(대우조선해양) 엄항섭 전략기획실장 우리 회사 방문



지난 3월 14일 DSME(대우조선해양) 엄항섭 전략기획실장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엄항섭 실장의 이번 방문은 가스텍(Gastech 2014) 행사를 맞이하여 3월 27일 우리 회사 다대2공장에서 있었던 국내외 선주·선급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PRS(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시연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위한 것이었다.

엄항섭 실장은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현장을 시찰하고 PRS제작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시연회에서는 DSME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PRS(천연가스 재액화 장치)를 선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DSME와 우리 회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DSME는 우리 회사에 PRS(천연가스 재액화 장치) 제작을 의뢰하였다. PRS는 자연 기화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우리 회사는 PRS를 구현하기 위해 제작 전 분야에 참여하였다.

엄항섭 실장은 한 달이라는 촉박한 기간이었음에도 별 무리 없이 PRS시연회 준비를 소화한 우리 회사에 대해 만족을 표하며 행사까지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진행자들의 수고를 당부하고 돌아갔다.

이에 대해 최급식 대표이사는 전 부서가 PRS제작과 시연회 준비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선주에게 깊이 각인될만한 시연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RUN SUNBO RUN 회사교육

2014 PSA 선보아카데미, 과장 직급 대상 '글로벌 리더십' 교육 실시



지난 4월 11일(금)~12일(토) 1박 2일간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과장 직급 25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십' 교육이 실시되었다. '글로벌 리더십' 교육은 부서 간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각 부서의 화합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2,800여 기업 및 관공서의 교육을 담당할 HSP컨설팅 유담과 PSA선보아카데미팀의 협업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교육내용으로 꾸러졌다.

교육이 진행되기 앞서 4월 7일(월)에는 본사 대교육장에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PMI(PSA MBTI)성격·적성검사와 SUNBO WAY TEST를 마쳤다. 이번 사전교육에서는 외부강사의 특강을 마련하여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동안 효과적인 사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를 들었다.

11일(금), 본격적인 '글로벌 리더십' 교육이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교육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점차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견시관'과 '연단'을 꼽았다.

'견시관'은 우리 회사의 부서별 상황을 반영하는 연극을 통해 가족·동료·상하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직시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연단'은 '항아리 자세'(두 팔로 큰 항아리를 들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연단법)를 취함으로써 의심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잠재력이 발휘되는 체험교육이었다.

이번 글로벌 리더십 교육은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평소 막연하게 알고 지내던 동료들과 조금 더 편안한 사이가 되었다"는 등 참가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마무리 되었다.

한편 4월 14일(월)~15일(화)까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PSA 선보아카데미 입학프로그램이 진행돼 새내기 사원들은 진정한 선보인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SUNBO NEWS 선보뉴스

우리 회사 공정만회 비상근무 시행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31일간 초과 물량에 대비한 '공정만회 비상근무'가 시행되었다. 올해 상반기 각 공장별 수주금액은 작년 대비 130%로, 작업량이 많아 회사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그만큼 작업자들의 작업량이 많아져 각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때 지연되는 문제도 생긴다. 공정지연이 장기화되면 납기지연, 미완품 납품, 불량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임원진들은 '일은 많지만 이익률은 낮아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각 사업부, 공장별로 공정만회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만회 비상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전사 직원들은 평일 야근 및 주말 특근까지 마다하지 않고 근무 했으며 전 부서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다. 업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업무효율 또한 높아졌다. 공정만회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은 "꼭 목표를 달성하여 공정만회기간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다함께 일을 하니 더 힘이 난다" 등 공정만회 비상근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리 회사는 한 달가량 이어온 공정만회기간을 통해 각 부서, 공장별로 세운 공정만회목표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사 설계 5, 6팀 구평2공장으로 이전



지난 3월 29일 본사에 자리 잡고 있던 설계 5, 6팀이 구평2공장으로 이사했다. 본래 대형구조물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설계 5, 6팀은 구평공장에 있었지만, 2년 전 설계부서 통합으로 업무 집중화 및 능력 향상을 위해 본사로 옮겨왔던 것이다.

이번에 설계 5, 6팀이 다시 구평공장으로 가게 된 것은 단순히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앞으로 구평공장이 플랜트 물량을 많이 수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평공장 생산팀에서 설계 5, 6팀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28일 저녁부터 이삿짐을 꾸리기 시작한 설계 5, 6팀은 29일 하루 동안 이사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이사당일 비가 와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다. 급히 이삿짐에 비닐을 씌우기도 했지만 일부 집기가 비에 젖는 바람에 햇볕에 말리느라 꼬박 하루가 더 걸렸다. 설계팀 일동은 "이사 하는 날 비가 오면 잘 산다는 어른들 말씀처럼 우리 팀도 앞으로의 일이 더욱 잘 될 것 같다"며 이삿날의 해프닝을 길조로 여겼다. 설계팀 임우택 부장은 "설계팀이 생산팀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큰 장점이다. 다만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만큼 오작을 내지 않아야겠다는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이사당일 최금식 대표이사가 구평공장을 찾아 이사하는 설계팀 직원들을 격려하며 금일봉을 전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설계팀이 구평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생산에서 발생하는 설계요류를 지체 없이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어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A/S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계팀 이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 회사, '사랑의 헌혈' 캠페인 가져



우리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매년 지속적인 헌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사랑의 헌혈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연계하여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3월 12일 하루 동안 다대1공장 앞에서 진행되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쉬지 않고 계속 가동되는 바쁜 생산일정 속에서도 이번 헌혈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직원들이 너무 고맙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산팀 이옥렬 사원은 "헌혈 10분으로 아픈 이웃을 도울 수 있으니 의미 있는 일이다. 많은 동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헌혈 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리 회사는 사랑의 헌혈은 물론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지원, 희망드림 무료급식, 의료봉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 및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일당백의 마음가짐, 선보하이텍 영암공장을 가다 - 공장장 이규현 상무

우리 회사 소식지 'SUNBO FAMILY'에서는 협력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 최동배 부장의 추천을 받아 '우수 협력사 탐방'코너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 호에서는 우리 선보의 가족이면서도 본사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자 회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선보하이텍' 영암공장이 이번 호의 주인공이다.

2014년 영암공장 품질목표

- 1. 품질우위확보 - 검사 합격률 100% 달성
- 2. 고객가치실현 - 제품 완성도 100% 달성
- 3. 고객신뢰확보 - 고객불만 처리비용 zero
- 4. 내부고객만족 - 실패인건비용 75% 감소

선보하이텍 영암공장은(이하 영암공장) 2002년 3600평 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관리직과 생산직을 합쳐 80여명이 함께 땀 흘리고 있다. 현대삼호 중공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4일 2800평 규모의 공장을 하나 더 임대하여 올 해 크게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는 1공장과 새롭게 생산이 시작된 2공장이 함께 '2014 영암공장 품질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생산에 임하고 있다.

영암공장 임직원들은 하나같이 일당백이다. 맡은 일뿐만 아니라 관리직원들도 상황에 따라 현장 계장작업을 수행해 낼 만큼 만능이다. 그러다보니 영암공장은 특유의 끈끈한 가족애가 형성되어 있다. '불철주야'로 함께 땀 흘리며 일을 하다보니 이제는 직원들 간의 특별한 가족애야말로 생산성 향상에 없어서 안 될 영암공장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다. 가끔 밤샘 업무로 지치기도 하지만 옆 자리의 동료로 인해 다시금 동기부여를 받고 힘을 내게 되는 것이다. 영암은 지역적인 특성상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매우 어렵고 비싼 인건비와 심각한 인력난도 부담이다. 주변 대기업에서 지역 인력을 거의 흡수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이규현 상무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기업에 걱정을 끼치지 않고 품질과 납기, AS까지 잘 처리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올해 영암공장 역사상 최대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이미 매출 목표의 150%를 달성하고 있고 6월에는 2014년 매출 목표를 상향조정하여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늘어난 물량에 대한 기대와 함께 책임감을 나타내었다. 계속해서 대한조선 등을 통해 신조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당분간 비상근무를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고 한다. 물론 영암의 지역특성상 따라오는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들을 헤쳐 나가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그 일환으로 업무와 휴식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컨테이너휴게소'를 설치하였다. "작업자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작년 하반기에는 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금연공장만들기가 컨테이너휴게소를 설치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쉴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이 확보되면서 자연스럽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제 뜻을 알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금식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규현 상무는 작업에 지칠 수 있는 현장 작업자들을

배려해 커피자판기 등 편의시설을 갖춘 휴게소를 공장 내에 마련했다. 쉬는 시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면서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그외 지역을 완전한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였는데 그 결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작업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휴식을 합리적으로 하게 되니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영암공장은 전 구성원들이 생산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지역 최고를 넘어 전국 최고의 생산성을 가진 공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생산성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능력 만큼은 믿고 맡기는 영암공장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사와 떨어져 먼 곳에 있다 보니 영암의 직원들은 선보가족으로서 함께 본사의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하지만 늘 'SUNBO FAMILY'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본사에 믿음과 신뢰를 주는 영암공장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다. 끝으로 이규현 상무는 "분위기가 어두운 회사는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이왕이면 웃으며 일합시다. 그래야 함께 하는 동료들이 힘이 납니다. 특히 관리자들이 밝아야 회사 전체가 표정이 밝아집니다."라며 영암공장 가족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업무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SUNBO LIFE 추천여행지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권릉 한옥마을**에서 여유를...

☆☆ 영암구림마을 (<http://ygurim.namdominbak.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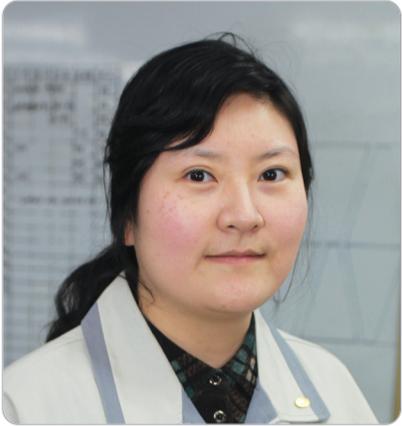


영암은 부산에서는 조금은 낯선 곳이지만 선보 가족들에게는 꽤 익숙한 지명이기도 하다. '선보하이텍 영암공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은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인 F1 경기를 열어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 봄에 찾은 영암은 근사하다. 마주쳤을 때 바로 탄성을 자아내는 예술적인 외양의 월출산이 마음을 붙잡는다. 들판에는 온갖 봄꽃과 새싹들이 자라나 봄의 환희를 안겨준다. 바로 이 월출산 주지봉 아래 오늘 소개할 꼭 가봐야 할 여행지가 있다. 전통 한옥 마을 구림마을이다.

이곳은 아직도 마을길과 500년 가까운 전통의 대동계가 전해 내려오는 마을이다. 역사가 무려 2,200년이란다. 그래서인지 마을길은 무척이나 편안함이 느껴진다. 나지막한 돌담과 어깨선처럼 늘어진 기와지붕은 직선과 통유리의 도시와는 달리 긴장을 풀어주기 충분하다. 특히 육우당은 조선 3대 명필가인 한석봉선생님과 어머니께서 글쓰기와 떡 썰기 시합을 벌이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의 육우당 현판 글씨 또한 한석봉 선생님의 글씨다.

구림마을의 역사를 한눈에 보려면 영암도기문화센터를 찾아야 한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시원이 되는 황토자기의 발상지이다. 해상을 통한 중국, 일본과의 교류를 시작한 여러 흔적들이 남아 있다. 또한 마을 곳곳에서 대규모의 가마터와 유물이 발굴되고 있는데 영암도기문화센터에서는 출토된 옹관과 구림도기, 가마터 등을 보고 도기제작 체험도 해 볼 수 있다. 구림마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는 영암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유적지와 사찰, 기념비 등이 많다. 그밖에 소개하지 못한 역사적인 곳이 즐비하다. 한국 전통 삶의 정취와 삼한시대의 모습들을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영암구림마을로 봄 여행을 떠나보자. 1박 이상의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한다.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다대2공장 생산관리부 | 김유미 사원

「생산관리부는 모든 부서 사이의 중간 가교라고 생각합니다!」

말고 있습니다.

Q. 생산관리부에서 김유미 사원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급자재담당입니다. 사급자재란 우리 회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소에서 자재를 구매해서 우리 회사에 입고하는 자재를 말합니다. 저는 사급자재를 현장에서 필요한 시점에 입고시키고 현장과 조선소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재수급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Q. 그동안 근무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현장에 필요한 자재가 제때 구비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구매발주가 늦었다든가, 세금관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도 필요한 자재가 들어오지 않아 애를 태우고 저 역시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양쪽을 다 설득시키고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Q. 일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급자재 담당이지만 다대2공장에 여직원이 저 하나이기 때문에 총무 일도 맡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일, 내 일을 구분 짓지 않고 모든 일이 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맡은 분야 외의 일도 제가 챙겨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합니다. 또, 함께 일하는 동료가 사내복지기금 등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거나 도와드리려고 노력합니다.

Q.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부터 하고 싶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저로서는 항상 미안하기도 합니다.

저희 공장은 다른 공장보다 직원들의 결속력이 높고 화합도 잘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협력과 화합의 아름다운 모습이 선보가족의 기업문화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대2공장 생산관리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미입니다. 2006년에 입사해 8년 동안 선보공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생산관리부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생산관리부는 현장, 구매, 설계 등 모든 부서 사이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생산력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부서입니다.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부서이기도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긴급대처를 해주기도 하고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섭외하는 등 여러 일을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영암공장 | 주석진 기사

「칭찬받은 만큼 회사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 3정 5S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해 봅니다.

Q. 칭찬 주자로서 느끼는 우리 회사는 어떤가요?

World Best Sunbo라는 말이 문득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서 우리 회사를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우리 회사에 대한 칭찬이 들려오면 정말 기분이 Up됩니다. 회사가 제 자신이고 제가 회사이듯, 우리 회사에 대한 좋은 말들은 곧 저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니까요. 정말 선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Q. 회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지금도 선보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

람이 있다면, 회사 차원에서 우리 선보 가족들의 건강과 복지에 조금만 더 눈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회사를 한층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직원 개개인 이 건강하고 근무하는 데 아무 걱정이 없다면 가정 역시 평화로울 것입니다. 이리 되면 무엇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이를 바탕으로 직원과 회사가 합심한 모습은 '글로벌 선보'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Q. 다음 칭찬주자를 추천한다면?

관리부 신슬기 양을 적극 추천합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 됐지만 당차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선보인답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은 물론이고 일손이 필요한 곳곳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선보하이텍 영암공장에서 납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보 식구가 된 지도 벌써 6년째군요.

Q. 칭찬 릴레이 주자로 선정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회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동료들도 많은데 제가 칭찬 릴레이 주자로 선정돼 정말 쑥스럽습니다. 회사

생일 축하합니다

다대공장

- 다대1공장 황세연 (04.18) 김도훈 (04.14) 하은준 (04.12) 손정락 (04.07) 김준호 (04.04) 최재호 (04.23) 김민정 (04.30) 안정빈 (04.02) 박상언 (04.14) 조혜영 (04.03) 엄익상 (04.30) 김종석 (04.21) 오경택 (04.24)

- 다대2공장 심병섭 (04.24) 김충민 (04.05) 최봉순 (04.22) 백명선 (04.20)

- 다대3공장 이준우 (04.27) 설계 박문영 (04.21)

구평공장

- 구평1공장 최원우 (04.03) 박다예 (04.16) 김중현 (04.01) 이동현 (04.16) 김명환 (03.31)

- 구평2공장 김갑진 (04.15) 김언진 (04.05) 광봉제 (04.25) 임우택 (04.21) 김태준 (04.22) 이원규 (04.25) 변정희 (04.20) 정종원 (04.05) 이태수 (04.07)



입사 기념일

다대공장

- 다대공장 이수원 (04.28) 박종혁 (04.02) 박철현 (04.24) 김준호 (04.09) 장철민 (04.21) 이현우 (04.01) 이동준 (04.15) 안우석 (04.15) 임재호 (04.08) 이영우 (04.01) 김재래 (04.25) 여인환 (04.17) 최우호 (04.01) 이현우 (04.01) 이영재 (04.24) 이형백 (04.24) 심응복 (04.24) 김갑진 (04.26) 임영삼 (04.30) 조경선 (04.01) 김기주 (04.01) 강동주 (04.19) 장기봉 (04.06) 이창면 (04.02) 정차균 (04.19) 하은준 (04.25)

구평공장

- 구평1공장 김진삼 (04.21) 정현우 (04.11) 백승모 (04.01) 정성화 (04.18) 박복만 (04.07)
- 구평2공장 조영화 (04.07)

영도공장

- 영도공장 성창훈 (04.02) 양병철 (04.02) 권운현 (04.23)